행안부 '경찰국' 이르면 내달 신설…김창룡 청장은 사의

이상민 장관 "권한 커져 통제 필요" 경찰 내부 반발 격화 "독립성 훼손" 민주 "독재 획책 대국민 선전포고"

행정안전부가 27일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 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경찰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까지 거

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 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그는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청장 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

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이 상관은 "역대 성무의 경찰에 대한 시위·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 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의 경 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 서관을 폐지했다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을 지휘·감 독할 '필요 최소한'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 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권고 안의 내용은 행안부 계획에 대부분 반영됐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권고안에 적극적으로 공감 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 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알려 진 직후부터 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해 온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 은 결국 이날 오전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 했다. 김 청장은 사의 표명 후 입장문에서 "현시점 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 다"면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김 청장의 사 의 표명에 대해 "사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 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안 부 경찰 통제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감 인 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계획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 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행안부가 경찰제 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수용하겠 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반대나 위법 논란에도 아 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렵시리 돌려놓은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라며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경찰 길들이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인권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다시 독재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도 경찰국 신설은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행안부 장관을 공안경찰부 장관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입장을 발표한 뒤 청사를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만 쳐다보는 집단 아닌가"…김종인, 국힘 포럼서 쓴소리

"변화하는 국민 정서 따라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민의힘은 원래 뿌리가 대통령 정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소속된 많은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집단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 힘 의원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강연 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 게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으면 그에 따라 정당이 반응을 보내야 다음에 미래가 보장되 는 것이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것 같 으면 그 정당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해 "승리의 결과를 냉정하게 보자면 그 좋은 환경에서 여론조사기관 이나 많은 사람이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승리 할 것으로 예견했는데 왜 선거 결과가 불과 0.7% 포인트 격차밖에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것의 의미를 냉정히 판단하고 무엇이 잘못돼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냉정히 분석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1년 후 총선을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전망이 서지 않 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빈부 격차, 남녀 갈등,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 중앙과 지방 간 갈등 등을 언급하 며 "정당은 갈등 구조 속에 있는 모든 이해단체 그 룹을 늘 접촉해서 그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책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과거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등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기득권 정 당이다,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인 식)해서는 지금 변화하는 국민들의 정서 속에 절 대로 표를 극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특정 사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나라 전반의 상황이 어 떻게 돌아가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 게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46.6%·부정 47.7%

리얼미터 조사 첫 데드크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0~24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이상 25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6.6%,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7%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긍정 평가는 5월 3주차 진행된 취임 후 첫 국정 지

지도 조사에서 52.1%를 기록한 뒤 5월 4주차 54.1%로 2%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6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52.1%(2% $p\downarrow$), 48.0%(4.1% $p\downarrow$), 48.0%, 46.6%(1.4% $p\downarrow$)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탔다.

부정 평가는 5월 3주차 40.6%에서 5월 4주차 37.7%로 2.9%포인트 내렸다. 이후 6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40.3%(2.6%p↑), 44.2%(3.9%p↑), 45.4%(1.2%p↑), 47.7%(2.3%p↑)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9%이다. /연합뉴스

강기정 민선 8기 광주시장 취임식 3대 콘셉트…"시간·상생·변화"

내달 1일 시청 대회의실서 취임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다음달 1일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8기 광주시정을 본격적으로 이끈다.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 8기 광주시 장직 인수위원회)는 강기정 민선 8기 광주시장 당선인 취임식 콘셉트는 '시간·상생·변화'에 중점 을 둔다고 밝혔다.

'시간'은 강 당선인이 새로운 광주시대를 여는 시간과 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주장했던 '당당하고 빠르게' 광주시정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상생'은 전남도 축하 사절단 방문 등으로 이뤄진 향후 광주·전남 상생을 의미한다. '변화'는 새로운 광주시대를 맞아 시장과 공직자들의 변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취임식은 시민 700여명, 공직자, 전남도 취임 축하 사절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자 없 이 '새로운 광주시대 60초 카운트' 영상을 시작으 로 진행된다. 이어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작 곡하고 작사한 노래에 맞춰 강 당선인이 민선 8기 광주시장 취임 선서를 한다. 그리고 기존 관행과 달리 읽는 취임사 대신 '기 회와 변화의 광주'를 만들기 위한 강 당선인의 시 정 철학과 로드맵을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강 당선인은 새로운 광주 시대는 시장과 공직자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한다 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강 당선인은 취임식에 앞서 광주독립운동 기념탑,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현충탑, 4·19 탑,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후 전남도 취임 축하 사절단과 함께 기념식수를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당기의 병기가 기

겨울의 차가운 냉기! 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뭉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석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제30-0949873호 특허청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셸 062)531-3530, H. 010-9229-3530

